

종합·해설

檢 'C& 수사' 칼날 지역 정·관계 겨냥?

야당 의원들 연루설 확산에 초긴장 민주 "야당탄압 표적수사" 강력 반발

검찰의 C&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광주·전남 정·관계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C& 그룹의 임명석 회장이 전남 출신인 데다 과거 정권에서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연루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은 검찰의 C& 그룹 수사와 관련, 당 안팎에서 일부 의원들의 로비 연루설이 확산되면서 위축을 한 분위기였다.

당장, C& 그룹 측에서 과거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집중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6~7명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C& 그룹의 임 회장이 전남

출신이고 광주 S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 핵심 인사들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역 모 중진 의원의 실우, 보좌관 출신 인사와 C& 그룹의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연루설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C& 그룹의 자회사에 있었던 지역의 정치인과 C& 그룹 최고위층 인사들과 지연과 학연이 있는 정치인들도 각종 로비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 모 의원은 "갖가지 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C& 그룹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과거 정권 당시) 내가 C& 그룹의 성장을 도운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광주의 모 의원 측도 "C& 그룹의 임 회장과 의원과는 일면식이 없다"며 "오히려 C& 그룹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점에서 로비 대상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C& 그룹의 전남도를 상대로 한 로비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남도가 C& 중공업 등 지역 조선업체가 자금난을 겪을 때 정부의 자금 지원을 주장한데다 공장 인허가 등을 주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전남도는 고용 효과가 큰 조선산업 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C& 중공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C& 그룹의 로비설은 말 그대로 '소설'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C&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연루설이 확산되자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타격을 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검찰개혁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는 관대하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았다"며 "그러면서 죽은 권력과 부도 기업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의원들의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 서 떠돌고 있는 C& 그룹 연루설은 단순한 루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치적 배경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국민과 반대운동 펼 것"

박지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공정"의 구호 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 정국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에 정면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관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해리로 도망쳤다"며 "그러면서 죽은 권력, 이미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대부분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한 것만 36년간 33회에 이를 정도로 공격은 직접적이고 강도도 높았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안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안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약 8조6000억원의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삭감분을 무상급식과 노인·장애인 복지, 지방재정 지원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C&그룹 수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메리츠화재 목포조선소 건설 지급보증1천억원 날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7일 C&그룹이 1조3000억원대의 특혜금융 가운데 수천억원을 은행보다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 조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 로비나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C&중공업이 뒤늦게 조선 사업에 뛰어들어 목포 조선소를 짓던 2007년 우리은행에서 1367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메리츠화재가 1268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C&중공업은 금융권의 추가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2008년 11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채권단의 승인을 얻지 못해 결국 퇴출됐고 이로 인해 메리츠화재는 1천여억원의 피해를 안게 됐다.

검찰은 대출이 이뤄졌던 시점이 조선경기 과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C&그룹 전체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겪던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에 특혜성 지원을 한 배경을 캐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조선사들이 발행한 선수금 환급보증(RG)의 거래가 성행했지만, 조선소도 없는 후발주자(C&중공업)에 선뜻 거액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임명석(49) 회장과 C&그룹이 은행과 함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2금융권을 특혜금융 창구로 삼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우하다고 보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농협이 C&그룹에 백화점 신축비용 명목으로 500여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

與 '부자 감세' 철회 우왕좌왕

지도부 동상이몽 속
대변인 "브리핑 실수"

소득세·법인세의 최고 세율인하, 즉 '부자 감세' 철회를 검토하던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였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무연 최고위원이 오늘(27일)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며 "안상수 대표가 검토를 제안했고, 정책위가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그동안 "감세는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추진했다. 이제 회복국면에 들어온 만큼 감세의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부자 감세 철회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또 신문은 이날 "안상수 대표가 오는 28일 부자 감세 철회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 대변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실수였다"고 뒤집었다.

그는 추가 브리핑에서 "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무연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한번 검토해보자"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 회의 종료 후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 이종구 정책위의부장의 대화 중 안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의부장에게 위안건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배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안 대표는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를 보고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인 뒤 "앞선 자신의 브리핑에 대해서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사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희경 정책위의장은 "지금 (감세 철회)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고공 호남지지율' 실제냐 착시냐

"신뢰정치 인정 결과" "野 대권주자 부재 때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호남지역 고공 지지율의 실제에 대해 정치권에 논란이 무성하다.

지난 8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전국은 물론 호남에서도 18.3%로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7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19.6%를 기록해 선두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 측은 지난 26일 라디오에 나와 "박 전 대표만이 그렇게 (지지율)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27일 "신뢰·정도정치, 세종시 논란에서 드러난 국토균형발전 의지, 호남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호남 출신 대권주자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사회통합이나 국민화합 정책을 발표하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선후보군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 대선 대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인들의 고도한 정치력 때문에 나온 결과로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호남지역 고공 지지율의 실제에 대해 정치권에 논란이 무성하다.

지난 8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전국은 물론 호남에서도 18.3%로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7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19.6%를 기록해 선두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 측은 지난 26일 라디오에 나와 "박 전 대표만이 그렇게 (지지율)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27일 "신뢰·정도정치, 세종시 논란에서 드러난 국토균형발전 의지, 호남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호남 출신 대권주자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사회통합이나 국민화합 정책을 발표하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선후보군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 대선 대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인들의 고도한 정치력 때문에 나온 결과로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특약점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뜨아아~ 목포출발, 북동(호황)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거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북동)출발 "북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북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승시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자유관광 - 제주항(17:30)출발
◆ 승시기간 별도 문의 ◆

문의: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남해고속 시월드고속웨리**

www.jejumt.net